

사회적 영성의 기원과 복원* **

- 선한 사마리아인 제자도를 중심으로

문시영 (남서울대, 교수)***

I. 들어가는 말

II. 사회적 영성의 기원과 복원: 선한 사마리아인 제자도를 중심으로

1. 사회적 영성의 기원과 복원을 향하여
2. 사회적 영성의 기원: 선한 사마리아인 제자도
3. 사회적 영성의 복원: 한국기독교의 과제

III.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1.49.07>

* 이 논문은 2020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A2A01042172).

** 이 논문은 '제자도에 근거한 사회적 영성의 모색'이라는 다년과제의 어젠더에 따른 기초작업이다. 1년차에는 선한 사마리아인 제자도를 중심으로 '공적 책임과 소통의 이웃 되기' 및 '공감과 환대의 타자 되기'를 사회적 영성으로 규정하고 논의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바울의 관점을 비롯하여 본회퍼에 이르기까지의 각각의 역사적 맥락에 대해서는 다년과제의 흐름 속에서 다루고자 한다.

*** 주저자, symoon@nsu.ac.kr

• ABSTRACT •

An Applied Approach to Social Spirituality based on Ethics of Good Samaritan Discipleship

Prof., Moon, Si Young(Namseoul University)

Calls for social spirituality of public responsibility, communication, empathy and hospitality are becoming urgent toward Christianity in Korea. The problem is that Korean Christianity tends to regard social spirituality as strange. This article proposes that social spirituality belongs to Christianity's own resources and is a task that Christianity must implement. In particular, this article deals with the origin and restoration of social spirituality by paying attention to discipleship based on discipleship training program which is familiar with Christianity in Korea. On the origin of social spirituality, this article pays attention to the good Samaritan discipleship. Based on the view of virtue ethics, the good Samaritan discipleship could be read as the origin of social spirituality; being neighbor and being other. Being neighbor refers to the ethics of public responsibility and communication, while being the other refers to the ethics of empathy and hospitality. This is not an attempt to fit today's issues into good Samaritan discipleship, but a work to confirm that social spirituality is embedded in the discipleship that Jesus requires. And this article presents the fact that the restoration of social spirituality is the urgent task of Korean Christianity. Regarding the restoration of social spirituality, this article suggests that Korean Christianity has a responsibility to actively implement social spirituality, not to regard it as strange. The conclusion of this article is that Korean Christianity must overcome the dangers of privatization and to pursue ethical reformation through restoration of social spirituality.

Key words: Social Spirituality, Discipleship, Responsibility, Communication, Empathy, Hospitality, Origin and Restoration of Social Spirituality

I. 들어가는 말

책임, 소통, 그리고 공감과 환대를 아우르는 ‘사회적 영성’(social spirituality)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짚어 보아야 할 것이 있다. 사회적 영성, 낯선(strange) 것일까? 이 질문은 사회적 영성의 모색을 위한 포석이다. 물론, 이 질문을 다루기 위해서는 사회적 영성의 개념과 기원에 대하여, 그리고 사회적 영성의 복원 및 현대적 적용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영성의 복원과 구현을 통하여 한국기독교의 윤리개혁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영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서 이 주제를 영성신학의 전유물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영성이라는 단어가 특정집단의 ‘대의명분’을 뜻하기도 하고 일종의 ‘관심사라는 뜻으로도 혼용되고 있는 현실에서,¹⁾ ‘영성적 전환’(spiritual turn)에 대한 사회학자들의 논의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과학문에서 영성에 관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공감과 환대의 타자윤리는 물론이고 공적 책임과 공공성, 그리고 소통의 문제에 관한 기독교윤리학의 관심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뜻에서, 이 글에서는 사회적 영성의 개념을 책임, 소통, 공감과 환대에 대한 관심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자 한다.

문제는 한국기독교의 스탠스이다. 외부로부터 기독교는 사회적 영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부족에 대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영성을 결여한 집단으로 내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내부적으로는 사회적 영성에 대해 낯설어하거나 심지어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회

1) Simon Chan, *Spiritual Theology: A systematic study of the Christian life* / 김병오 역, 『영성신학』(서울: IVP, 2017), 17.

적 영성의 부족을 비판받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사회적 영성을 낮설어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공감과 환대, 그리고 공적 책임과 소통을 위한 관심을 낮춘 자 대하듯 외면하는 것은 사회적 영성에 대한 논의 자체를 생략하거나 차단하는 데로 귀결되기 쉽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이 글은 사회적 영성이 한국기독교에 낮선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사회적 영성의 기원이 기독교에 있으며 그 복원의 과제가 한국기독교의 몫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려는 시론(試論)이다. 이러한 뜻에서, 제자도에 근거한 사회적 영성을 모색하고 그 과제를 한국기독교의 윤리개혁과 연관지어 살펴보고자 한다.

II. 사회적 영성의 기원과 복원: 선한 사마리아인 제자도를 중심으로

1. 사회적 영성의 기원과 복원을 향하여

1) 선행연구의 검토: 사회적 영성의 개념과 관련하여

사회적 영성은 시대를 넘어 지속되어온 관심사로서, 여러 분과학문에서 다루어온 사회적이고 실천적인 어젠더를 망라한다. 영성신학이 다루어 온 어젠더에 새삼스럽게 기독교윤리학의 관점에서 참여하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한국기독교가 구현해야 할 윤리를 사회적 영성이라는 지평에서 풀어내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뜻에서, 이 글은 사회적 영성의 개념을 확장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점과 사회적 영성의 기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에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국기독교에 낮선 그 무엇이 아니라, 그 기원이 제자도에 있으며 적극적으로 복원해야 할 과제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함이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한국기독교가 사회적 영성을 놓치고 있으며 내면적 영성에 경도되어 있거나 혹은 사회적 영성에 무관심하다고 진단한다. 이 부분에서, 사회적 영성에 대한 논의들은 영성에 대한 관심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영성적 전환을 배경으로 한다. 예를 들어, 뉴에이지 현상에서처럼 영성을 종교의 몫이 아니라 인간에게 내재하는 신성함에 대한 추구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다. 영성사회학이라는 이름까지 사용하여 영성의 상품화 문제를 비롯한 논제들을 다루면서, 영성운동에 나타난 사회참여성에 주목하는 경우도 있다.²⁾ 사회적 영성에 관한 논의는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사회적 영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는 가톨릭 웹사이트 <사회적 영성>에서 볼 수 있다. ‘사회적 영성과 가톨릭 사회교리’를 다루면서,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사회적으로 관여하는 영성’(socially engaged spirituality)을 강조한다.³⁾ 예수회(Jesuit)가 펴낸 『사회적 영성의 창틀』(*Windows on Social Spirituality*)에서 “기독교 영성은 사회적”(Christian spirituality is social)이라는 표제를 말한 것 역시 의의가 있다.⁴⁾ 젠더, 가난, 그리고 타자에 대한 관심 및 사회정의와 환경문제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룬 이 책은 글로벌 맥락에서 사회적 영성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국내에서도 사회적 영성에 대한 관심이 일고 있다. 글로벌 맥락과 차이가 있다면, ‘세월호’를 정점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월호 이후에도 삶은 가능한가?’를 묻는 『사회적 영성』에서 한국기독교가 사회적 영성에 관심해야 함을 일깨운 점은 의의가 크다.⁵⁾ 다만, 사회적 영성의 개념에

2) 송재룡, “영성 사회학 테제의 가능성: 쟁점과 전망,” 『사회이론』 44(2013), 284.

3)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라. *<https://social-spirituality.net> (2020.11.16일 접속)

4) 이와 관련하여 다음 책을 참고하라. Jesuit Centre for Faith and Justice eds, *Windows on Social Spirituality* (Dublin, Ireland: The Columba Press, 2003).

5) 이와 관련하여 다음 책을 참고하라. 김진호 외, 『사회적 영성』(서울: 현암사, 2014).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사회적 영성의 개념이 다양하다는 것은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다. 분과학문들의 관심에 따라 사회적 영성의 개념은 다양해질 수 있다. 기독교 영성의 사회적 측면(social aspect of Christian spirituality)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사회적 제자도(social discipleship) 내지는 공적 제자도(public discipleship)를 말하기도 한다. 사회적 영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일종의 문제설정이라고 할 수도 있다. “영성적인 것, 윤리적인 것, 사회적 것이라는 상이한 개념들을 새로운 구도 안에서 접합시킴으로써 각각의 것들에 대한 지배적인 가정, 생각, 관점 또는 상황을 재구성하고 쟁점이나 문제를 재규정하려는 비판적 문제설정”이라고 말하는 경우이다.⁶⁾

이 글은 선행연구들을 참고하면서 ‘내면 윤리의 사회적 구성’에 주목한다. 특히, “내면적 영성에 머무는 동안 덮어둔 사회적 영성의 각성을 추구하고 공공성과 개인성의 만남을 통해 내면 윤리의 사회적 구성을 추구하자”는 주장에 관심한다.⁷⁾ 니버(Reinhold Niebuhr)가 말했던 것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독교윤리가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구분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내면 윤리의 사회적 구성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장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공공신학에서 말하는 공공성 개념과 공적 책임을 아우르는 사회적 영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유이다.

나아가, 타자윤리와의 연관성을 확장적으로 읽어내야 한다. 한국기독교가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애도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에서 볼 수 있듯이,⁸⁾ 차별과 배제를 극복하고 공감과 환대의 윤리를 추구하는 것은

6) 정용택, “도덕이 사라지는 그곳으로 영성은 가야 한다,” 김진호 외, 『사회적 영성』, 162.

7) 박명립, “사회적 영성, 내면윤리의 사회적 구성,” 〈복음과 상황〉 (2017.1.26일자).

8) 정경일, “애도, 기억, 저항: 세월호 안의 민중신학,” 김진호 외, 『사회적 영성』, 124.

기독교윤리학의 과제이다. 이러한 뜻에서, 사회적 영성은 기독교윤리와 기독교영성의 만남이다. 사회적 영성은 영성신학의 전유물도 아니고 다의적으로 사용되는 영성 개념의 응용도 아니다. 시민사회에서 요청되는 책임, 소통, 공감, 그리고 환대에 대한 관심이다.

물론, 사회적 영성의 개념과 범위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책임, 소통, 공감과 환대를 기독교윤리학에서 추구하는 사회적 영성의 전부라고 할 수 없다. 연대(solidarity), 정의, 평화를 비롯한 여러 관심사를 아우를 수 있으며 그 모든 것의 총화를 사회적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시대와 인물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다. 사회적 영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바울의 사회적 영성을 비롯하여 아우구스티누스, 칼뱅, 루터에 이르는 역사적 전개는 물론이고 본회퍼와 현대 신학자들에게서 사회적 영성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어떤 강조점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 또한 필요해 보인다.

문제는 사회적 영성을 새로운 혹은 낯선 그 무엇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실성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사회참여적 성향을 지닌 신학의 전유물로 간주하거나 한국기독교의 타자인 것처럼 여길 우려도 있다.⁹⁾ 게다가, 자성을 일깨우는 선행연구를 기독교에 대한 ‘디스’로 곡해할 소지까지 있다. 예를 들어, “교회를 넘어서, 기독교를 넘어서, 세상 속에서 타자 되기를 향한 감성과 그 실천에 사회적 영성이라는 이름을 돌려주고자 한다”는 주장은 사회적 영성의 핵심을 짚은 것이라 하겠다.¹⁰⁾ 하지만 이것을 사회적 영성의 회복을 요청하는 반어법으로 읽으려 하지 않고 한국기독교에 대한 비난으로만 여긴다면, 문제는 복잡해

9) 이 문장은 다음 책의 표현을 응용하였다. 이진구, 『한국 개신교의 타자인식』(서울: 모시는 사람들, 2018). 이 글에서는 사회참여적 관심을 타자로 여기는 경향에 대한 우려로 받아들였다.

10) 김진호 외, 『사회적 영성』의 표제로서, 사회적 영성의 논의가 추구할 방향성을 말해준다.

진다.

여기에 더하여, 사회적 영성을 말하는 것 자체를 두고 한국기독교가 강조해온 ‘교회적 영성’ 내지는 ‘내면적 영성’을 문제 삼거나 그 단절을 요구하는 것으로 비취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거부감으로 작동할 수 있겠다. 이러한 추측과 오해들이 쌓여 사회적 영성을 한국기독교에 낯선 그 무엇으로 간주할 명분이 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영성을 회복해야 할 과제로 제시하려는 기획이 어그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사회적 영성의 기원과 복원이 한국기독교에 낯선 그 무엇이 아니라 본질적 관심사이자 과제라는 인식이 긴요하다.

2) 제자도에 근거한 사회적 영성의 모색

사회적 영성을 낯선 그 무엇이 아니라 회복하고 펼쳐내야 할 어젠더라는 점을 말하기 위해서는 한국기독교에 낯설지 않은 요소에 그 근거가 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자도’는 유력한 후보의 하나이다. 그 이유를 풀어서 말하면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에 주목해야 한다. 제자도에 대한 친숙함, 그리고 영성함양에 관한 기대가 바로 그것이다.

그 하나는 한국기독교가 ‘제자도’에 매우 친숙하다는 사실이다. 제자도는 베스트셀러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과잉일 정도로 익숙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영성이 제자도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중요한 진전을 이룰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특히, 사회적 영성이 한국기독교에 낯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물론, 제자도를 제자훈련 프로그램과 동일시하거나 혹은 목회자의 제자를 육성하는 방식으로 왜곡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기는 하다.¹¹⁾ 본회퍼

(Dietrich Bonhoeffer)가 말한 것처럼, “제자도 없는 기독교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이지만,¹²⁾ 한국기독교의 제자훈련 프로그램들이 과연 제자도에 충실한 것일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¹³⁾ 특별히, 내면적 영성 및 교회적 영성에 제한시키는 경향은 사회구조(social structures)에서도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해야 한다는 제자도의 본질을 놓치는 것과 다르지 않다.¹⁴⁾ 이러한 뜻에서, 제자도에 근거한 사회적 영성의 모색은 내면적 혹은 교회적 영성에 제한된 한국기독교의 인식을 바로잡을 자원이 될 수 있겠다.

다른 하나는 한국기독교가 영성함양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영성에 대한 관심과 영성함양을 위한 노력들은 한국기독교의 중요한 자원이다. 영성이라는 말은 ‘아주 많은 검색결과가 나오는 단어’(buzz word)라는 점에서,¹⁵⁾ 사회적 영성의 함양과 연결지를 필요는 충분히 보인다. 이 부분에서, 기독교윤리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성과 윤리는 비판적이고 대화적인 관계(critical-dialogical relationship)에서 작동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¹⁶⁾ 예를 들어, 수직적 영성과 수평적 영성의 통합 혹은 영성과 윤리의 통합을 추구한 거스타프슨(James

11) 이에 관해서는 제자훈련의 공과를 균형있게 평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제자도 구현의 과제를 모색한 다음 책을 참고하라. 송인규 외, 『한국교회 제자훈련 미래 전망보고서: 무엇을 위한 누구의 제자인가?』(서울: IVP, 2016).

12) Dietrich Bonhoeffer, *The Cost of Disciple*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95), 59.

13) 문시영, “덕 윤리에서 본 제자훈련과 사회적 영성의 성품화,” 『남서울대 논문집』 26(2021), 117~134.

14) Jennifer M. McBride, *Radical Discipleship: A Liturgical Politics of the Gospel*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2017), 44.

15) Richard M. Gula, “Spirituality and Morality: What are we talking about?,” Charles E. Curran and Lisa A. Fullum, eds, *Ethics and Spirituality* (Nahwahm NJ: Paulist Press, 2014), 39.

16) 같은 글, 58.

Gustafson)의 관점,¹⁷⁾ 혹은 영성과 윤리의 연관성을 고려하는 ‘성품윤리’ 혹은 ‘덕 윤리’(virtue ethics) 또한 의미 있는 통로가 되리라 기대된다.

그중에서, 이 글은 덕 윤리에 기초하여 ‘제자도에 근거한 사회적 영성’에 관심을 둔다. 사회적 영성을 덕의 사회적 확산으로 풀어내자는 취지이다. “사회적 영성이란 사랑, 치유, 희생, 구원 등 도구적 이성의 사용을 뛰어넘는 종교적 덕성이 교회 밖으로 확산되는 것이며 신자유주의 시대의 남을 돌보지 말라는 반윤리에 정면으로 맞서 남을 돌보려는 마음이 사회적 영성의 바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⁸⁾ 이것은 사회적 영성이라는 단어가 전통적 영성개념보다 성품 및 덕성과 연관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이와 관련하여, 제자도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성을 함양한다는 점은 중요한 포인트이다.¹⁹⁾ 영성함양을 덕 윤리와 연관짓는 포터(Jean Porter)의 관점²⁰⁾ 및 덕 윤리를 통한 영성함양을 말하는 머피(Séamus Murphy)의 주장²¹⁾ 등은 참고할만한 요소이다. 덕 윤리의 다른 표현일 수 있는 성품윤리(character ethics)를 제자도와 긴밀하게 연관시킨 관점²²⁾ 역시 중요하다. ‘우리는 누구이며,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에 관심하는 덕 윤리가 제자도에 주목하기 때문이다.²³⁾ 나아가, 사회적 영성

17) 노영상, 『영성과 윤리』(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2009년판), 11.

18) 황진미, “세월호 국면에 나타난 사회적 영성,” 김진호 외, 『사회적 영성』, 93.

19) Matthew Ashley, “The turn to spiritualit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ology and spirituality,” *Christian Spirituality Bulletin* (1995), 13~18.

20) Jean Porter, “Virtue ethics and its significance for spirituality,” *The Way* supplement 88(1997), 27.

21) Séamus Murphy, “Two Challenge for Social Spirituality,” in Jesuit Centre for Faith and Justice eds, *Windows on Social Spirituality* (Dublin, Ireland, 2003), 149.

22) Glen Stassen and David Gushee, *Kingdom Ethics: Following Jesus in Contemporary Context* /신광은, 박종금 역,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 따름의 윤리』(논산: 대장간, 2018), 85.

23) Daniel Harrington and James Keenan, *Jesus and Virtue Ethics: Building Bridges between New Testament Studies and Moral Theology*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2), 49.

의 함양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지닌다. ‘행위는 존재에서 나온다’(agere sequitur esse)는 덕 윤리의 명제를 따라,²⁴⁾ 제자도를 통한 사회적 영성의 함양을 기대하는 셈이다. 이렇게 보면, ‘제자도에 근거한 사회적 영성의 모색’은 사회적 영성이 한국기독교에 낯선 그 무엇이 아니라 본래적 관심 사이어야 함을 말해줄 ‘플랫폼’으로 적합해 보인다.

2. 사회적 영성의 기원: 선한 사마리아인 제자도

1) ‘제자도’ 로서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제자도에 근거한 사회적 영성의 모색을 위해, 이 글은 한국기독교에 낯설지 않은 혹은 친숙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제자도에 주목한다. 물론, 선한 사마리아인 제자도가 사회적 영성의 유일한 근거인 것은 아니다. 또한 강도 만난 사람처럼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만 작동하는 것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²⁵⁾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선한 사마리아인 제자도에 주목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예수께서 말씀한 제자도에 사회적 영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확인시켜줄 유력한 근거이기 때문이다. 특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근간으로 ‘이웃 되기’를 교훈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통찰이 담겨있음에 착안하였다.

사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누가복음의 맥락에 연관된 비유로 읽거나 심지어 어린이를 위한 교훈쯤으로 간주되어 왔다. 하지만, 예수께서

24) Todd A. Salzman and Michael G. Lawler, *Virtue and Theological Ethics: Toward Renewed Ethical Method*, (Maryknol, NY; Orbis Books, 2018), 77.

25) 익명의 심사자께서 조언한 내용에 필자도 동의한다. 제자도를 통전적으로 조망할 필요는 충분하지만, 이 글에서는 ‘제자도에 근거한 사회적 영성의 모색’이라는 어젠더를 수행하고자 장기연구의 ‘플랫폼’을 마련한다는 뜻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제자도에 집중한다는 점을 밝혀둔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위를 가리키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눅10:37)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장르상 비유인 것은 맞지만, 예화나 설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세우신 제자도로 읽어야 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제자도의 맥락에서 읽혀야 하며 제자들에게 부여된 윤리에 속하기 때문이다.²⁶⁾

잘 알려진 것처럼, 예수께서는 구약의 배경을 반영하면서도 독특한 제자도를 세웠다. 예수께서 세우신 제자도는 복음서 각각의 특수한 배경과 관심을 반영한다.²⁷⁾ 이 글에서는 누가복음의 제자도를 배경으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주목하고자 한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누가복음(10:29~37)에만 나오지만, 이 비유의 중요성은 널리 인정되어 왔다. 이 비유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입증될 수 있겠다.”²⁸⁾ 심지어, 이 비유에 대해서는 일종의 해석사를 풀어내는 것도 가능할 정도이다. 마르시온을 비롯하여, 오리겐, 암브로시우스 등 초대교부들은 알레고리 해석을 적용했고 아우구스티누스의 경우가 대표적이다.²⁹⁾

하지만, 알레고리 해석은 본문으로부터 의미를 이끌어내는 것

26) Darrell L. Bock, *A Theology of Luke and Acts* / 강대훈 역, 『누가신학』(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8), 382.

27) 김경진, “공관복음 제자도 비교연구,” 『신약논단』21-1(2014), 1~26.

28) 김득중,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연구,” 『신학과 세계』15(1987), 239.

29) ‘여리고로 내려간 사람은 아담을, 예루살렘은 평화로운 하늘도시를, 여리고는 인간의 죽음을, 강도들은 마귀들과 추종자들을, 옷을 벗긴 것은 그의 불멸성을 제거하는 것을, 때리는 것은 죄를 짓도록 설득하는 것을,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간 것은 죄로 인해 영적으로는 죽었으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다소 남아있기에 아주 죽은 것은 아님을, 제사장은 율법을, 레위인은 예언자들을,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리스도를, 상처를 싸매는 것은 죄를 제어한 것을, 기름은 희망과 위로를, 포도주는 영적 일을 하라는 권면을, 짐승은 그리스도의 몸을, 두 데나리온은 사랑의 두 계명(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주막은 교회를,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시 돌아옴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한다.’ 다음 글에서 재인용했다. 선한용, “어거스틴의 성서해석,” 『신학과 세계』18(1989), 207~208.

(exegesis)이 아니라, 본문 안으로 의미를 집어넣은 것(eisegesis)이라는 점에서, 극복의 대상이다. 알레고리를 넘어설 단초는 칼뱅에게서 마련되었다. 이웃됨의 개념은 친구나 친척에게 국한되지 않고 전체 인류에 해당한다는 칼뱅의 통찰은 이후 율리허(Adolf Julicher)에게서 결실을 맺는다. 알레고리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희생적인 사랑의 행동을 강조한 것이라는 율리허의 관점 이후 역사비평 등을 통한 노력이 이어져 왔다. 알레고리 극복은 물론이고 역사비평과 문학비평의 한계까지도 넘어서, 역사적 예수의 뜻을 온전하게 읽어내려는 흐름이다.³⁰⁾

국내에서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지속적인 관심사이다. 무엇보다도, 누가의 문맥을 위한 예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주목할만하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강도 당해 응급상황에 놓인 환자에게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행해야 할 윤리”로 읽는 관점이 그것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위기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지능력과 즉각적 실천력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사랑을 보여주었으며 예수의 윤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윤리로 요약된다”는 주장이다.³¹⁾

또한 이 비유가 “패러디, 과장, 풍자를 통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이 비겁한 기회주의자들임을 폭로하며, 내부인으로서의 유대인과 정죄대상인 외부인으로서의 사마리아인을 규정하는 제도와 가치를 전복시킨다”는 주장도 있다.³²⁾ 이것은 “선한+사마리아인의 어울리지 않는 조합을 통해 인간이 선과 악의 가능성에 놓여있음을 말해주며 ‘강도 만난 사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해석과 연관된다.³³⁾ 그리고 예수께서 사랑의 실천을

30) 조태연, “비유해석의 역사와 새로운 연구의 필요성: 이미지 네트워킹의 새 방법론을 모색하며,” 『신약논단』25-4(2018), 901~946.

31) 김관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눅10:30~35) 연구,” 『신약논단』14-4(2007), 1015~1052.

32) 김춘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눅10:30~35)에 나타난 예수의 해학,” 『신학과 목회』37(2012), 25.

요구하신 것이라는 해석으로 이어진다.³⁴⁾ 그 외에 여러 해석들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이러한 논의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제자도의 관점에서 읽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2) 이웃 되기: 책임과 소통의 제자도

선한 사마리아인 제자도의 핵심은 이웃 되기이다. 이 부분은 다양한 읽기로 나타난다. “내가 정하는 이웃이 아니라 도움 받는 자가 도움 받았노라고 말하는 친구로 인정받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을 비롯하여,³⁵⁾ 고정관념의 탈피를 말한다는 주장도 있고,³⁶⁾ 난민문제와 난민선교에 적용한 경우도 있다.³⁷⁾ “예수께서 외면 당하던 사마리아인이 유대인 제사장이나 레위인보다 더 나은 이웃임을 제시하면서 이웃사랑의 범주를 이방인을 포함시켰다”는 취지로 읽기도 한다.³⁸⁾ 공통점은 ‘이웃’에 대한 관심이라는 점이다.

이웃 개념은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로서,³⁹⁾ 그 전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이다.⁴⁰⁾ 아웃카(Gene Outka)에 따르면, “기독교인이라

33) 김춘기, “신해석학에 따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의미,” 『신학과 목회』(1998), 107~114.

34) 김춘기, 『예수를 따르는 자: 복음서의 제자직』(서울: 한울출판사, 2009), 137.

35) 박창현, “강도 만난 조선인의 친구 선한 사마리아인 스크랜튼의 칭찬구 선교,” 『선교신학』31(2012), 91~132.

36) 이민규, “누가복음 10:25~35에 나타난 고정관념의 탈출: 예수와 율법사와의 논쟁 그리고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신약논단』9-2(2002), 323~348.

37) 최원진, “한국교회의 난민선교를 위한 성경적 제안: 눅10:25~37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중심으로,” 『복음과 선교』49(2020), 429~461.

38) 김은수, “누가의 신학주제에 대한 선교적 해석: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선교신학』55(2019), 71~97.

39) Sarah Teather, “My neighbour the refugee,” in Richard Carter and Samuel Wells, eds., *Who is My Neighbour?* (London: SPCK Publishing, 2018), 177~187.

40) Jonathan R. Wilson, *Gospel Virtues: Practicing Faith, Hope and Love in Uncertain Times* (Wipf and Stock publishers, OR: 1998), 145.

면 필연적으로 헌신해야 할 실천적 교리로서의 사랑의 계명에 대하여 특별한 존중이 필요하다.”⁴¹⁾ 다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일시하는 것은 이상숭배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환원하는 것은 위험하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위험이 있으며 이웃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못할 우려도 있다.”⁴²⁾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사회적 영성의 원동력임에 주목해야 한다.

이웃 되기는 하나님 사랑의 제자도와 맞물리는 것으로서, 1세기 초 랍비들 사이에 쉘마의 이웃사랑 논쟁이 진행 중일 때, 율법교사가 예수를 시험하려고(ekpeirazō) 던진 질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답했던 맥락에 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무엇보다도 제자됨의 문제에 관심하게 하며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초대한다. 선한 사마리아인 제자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을 이야기 속에 어디에 두고 있는지 성찰해야 하며,⁴³⁾ ‘내 이웃이 누구니까?’(눅10:29)의 질문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눅10:36)의 반문을 하나로 엮어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겠다.

우리 자신이 이웃이 되어야 한다고 읽으면, 부담스러운 요구들로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이웃을 예수로 본다면 이웃은 우리에게 선물, 지혜, 통찰력, 축복을 주러 오는 존재이다. 우리를 구하러 오신다. 예수는 모두를 이웃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고난을 참아내신 분이시다. 어떤 차별과 고난

41) Gene Outka, *Universal Love and Impartiality*, 이창호 역,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15), 168.

42) 이창호, 『사랑의 윤리: 사랑에 관한 신학적 윤리적 탐구』(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20), 24.

43) Rowan Williams, “The ethics of global relationships,” in Richard Carter and Samuel Wells, eds., *Who is My Neighbour?*, 17.

에서도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다.⁴⁴⁾

이러한 뜻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제자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이웃 되기’의 제자도로 이어진다. 시혜적 의미의 이웃 되기 혹은 도덕적 교훈에 그치지 않는다. 물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자체는 중요하다. 예를 들어보자. 글로벌시대에 불의, 질병, 폭력, 그리고 빈곤의 희생자가 되고 있는 글로벌 이웃을 어떻게 도울지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웃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자체까지도 이웃 사랑에 속한다는 점을 일깨워준다.⁴⁵⁾ 이웃 사랑의 글로벌 문제의식까지 말해준 점은 의의가 있지만, 그것으로 완성인 것은 아니다.

또 다른 예로, 온정주의를 피하라는 교훈을 생각해보자. “물자를 퍼주는 온정주의, 더 많은 것을 설교해 주려는 영적 온정주의, 사업능력을 훈련시키려는 지식 온정주의,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까지 대신해주려는 노동 온정주의, 그리고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대신 계획을 짜고 관리해주는 관리 온정주의 등을 피하라”는 주장이다.⁴⁶⁾ 선한 사마리아인 제자도를 시혜적이고 온정주의적 관점에서 읽어내는 경향을 극복하기 위하여 참고할 부분이다.

더 중요한 것은 본회퍼가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타자를 위한 존재(being for others)였으며,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타자를 위한 존재가 되어 제자도를 실천해야 한다는 점이다.⁴⁷⁾ 사회적

44) Samuel Wells, “My neighbour, God’s gift,” in Richard Carter and Samuel Wells, eds., *Who is My Neighbour?*, 223~244.

45) Bruce Wydick, *Shrewd Samaritan* (Nashville, TN: W Publishing Group, 2019), 6.

46) Steve Corbett and Brian Fikkert, *When Helping Hurts* / 오세원 역, 『헬프: 상처를 주지 않고 도움을 주고받는 성경적인 방법』(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4), 151~156.

47) 다음 책을 추천한다. 김성호, 『디트리히 본회퍼의 타자를 위한 교회』(서울: 동연, 2018). 참고로, 본회퍼에 대한 연구는 ‘제자도에 근거한 사회적 영성’의 다년과제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다.

영성에 관한 기독교윤리학적 논의는 바로 이 부분을 응용하고 확장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뜻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참 시민이라고 규정하면서 상처받은 사람에 대한 보살핌의 책임과 교회를 넘어 이웃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 것은 의의가 크다.⁴⁸⁾

아렌트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 말했던 것은 이 부분에서 의미 있게 다가온다.⁴⁹⁾ ‘무세계성’(worldlessness)의 지적 즉 현실을 외면하거나 도피하려는 경향에 대한 비판이라 할 수 있다. “천막이나 불모지로서의 세계가 아니라, 평안한 안식처로서의 세계에 관심해야 하며 책임적이고 공격적인 사랑을 통해 만들고 가꾸어야 할 세계를 지향해야 한다”는 취지였다.⁵⁰⁾ 아렌트가 아우구스티누스의 ‘하나님의 도성’을 ‘정치공동체’로, ‘이웃’은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은 ‘시민들 간의 유대감’으로 해석하는 이유이다.⁵¹⁾

아렌트의 문제제기를 충분히 참고하면서, 앞서 사회적 영성의 개념과 관련하여 ‘내면윤리의 사회적 재구성’을 말했던 부분을 소환해보자. 개인 윤리와 사회윤리의 구분을 강조한 니버의 통찰은 공공성의 요청과 맞물린다. 라스무센(Larry Rasmussen)이 니버를 공공의 영역(public arena)에 관심한 탁월한 공공의 신학자라 했던 것은 의의가 크다.⁵²⁾ 공공신학(Public Theology)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마티(Martin Marty)도 니버를 공공신학자로 분류했을 정도로,⁵³⁾ 공공성에 대한 관심은 기독교사회

48) 박영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에게서 찾는 시민다움,” 『새가정』 2007.6월호, 12.

49) 이에 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라. 문시영, “『신국론』에 나타난 아우구스티누스의 사회윤리,” 『기독교사회윤리』 40(2018), 71~100.

50) 김정숙, “기독교 신학적 사유를 통한 한나 아렌트의 세계 사랑의 의미: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랑의 개념과 세계 이해를 중심으로,” 『신학사상』 175(2016), 230.

51) 서유경, ‘역자후기,’ Hannah Arendt, eds. by Joanna Vecchiarelli and Judith C. Stark, 서유경 역, 『사랑개념과 성 아우구스티누스』(서울: 텍스트, 2015), 361.

52) Rasmussen L., ed., “Introduction,” Reinhold Niebuhr, *The Theologian of Public Life* (Fortress Press, 1991), 1~5.

윤리에서 중요하다.

니버의 관심은 공공신학(public theology)에 의해 계승되고 확장된다. 공공신학은 공적인 삶(public life)을 신학의 주제로 삼고 현대의 정치-경제적 구조(the political-economic structures)를 다룰 것을 강조한⁵⁴⁾ 스택 하우스(Max L. Stackhouse)가 사회현실과 정책에 대한 니버의 관심을 경제의 영역을 포함한 시민사회 전반 및 글로벌 영역으로 확장시킨 것은 이웃 되기의 제자도를 공적 책임과 연관짓는 근간이다.

공적 책임과 공공성 구현의 제자도를 위해서는 ‘신앙의 사사화’(私事化, privatization) 극복이야말로 필요하다. 사사화된 영성은 “제자도를 편향적으로 읽는 도피의 영성을 낳고 세상으로부터의 도피(fuga mundi)는 제자도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기 때문이다.”⁵⁵⁾ 오히려, 시민사회에 윤리적 가이드를 줄 수 있는 공적 담론(public discourse)에 관심해야 한다.

소통의 문제도 다르지 않다. “소통을 대화라고만 인식하는 것은 협소하다. 타자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여 확장된 소통의 개념을 가지고 그 안에서 공감에 대해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⁵⁶⁾ 소통을 시민적 맥락에서의 이웃 되기로 읽어야 한다. 소통하지 못하는 기독교로부터 공적 소통을 추구하는 제자도를 구현해야 할 과제가 한국기독교에 부여되어 있다.

요컨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이웃 사랑을 시혜적이고 온정주의적인 관점에서 읽는 단계를 넘어서야 한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예수께서 요청하신 제자도에 속하며, 그 안에 공적 책임과 소통을 구현하

53) Tomoaki Fukai., ‘Theology of Japan as Public Theology’ in *A Theology of Japan: Origins and Task in the Age of Globalization* (Seigakuin Univ. Press, 2005), 91.

54) Max L. Stackhouse, *Public Theology and Political Economy: Christian Stewardship in Modern Society*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 Co., 1987), intro. ix.

55) 송창현, “사회적 영성으로의 초대,” 『가톨릭평론』 1(2016), 216.

56) 홍성민, “타자와 공감영역: 인정과 환대의 사이에서,” 『한국프랑스학논집』 107(2019), 304.

는 이웃 되기로서의 사회적 영성을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사회적 영성의 기원은 예수께서 요청하신 제자도에 있으며 시민적 맥락에서 공적 책임과 소통의 구현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3) 타자 되기: 공감과 환대의 제자도

사회적 영성의 기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에 있다는 점에 기초하여, 짚어야 할 것이 있다. 이웃 되기로 그칠 것이 아니라, 타자 되기로 나아가야 한다. 사회적 영성의 개념에는 “타자화된 자, 속하지 못한 자에게 품는 배려의 감정과 그런 이들과 친밀함과 지지 감정을 나누는 공감의 감정에 기반을 둔 모든 실천”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⁵⁷⁾ 선한 사마리아인의 제자도를 “함께 아파하기의 타자 되기”로 읽어야 할 필요를 말해주는 듯싶다.⁵⁸⁾

특히, 타자 되기를 위한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 이를테면, 선한 사마리아인 제자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 ‘착한 아이 만들기’로 읽어온 관행부터 바뀌어야 한다. 교회학교 교재에 관한 어느 연구는 중요한 통찰을 준다. “이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읽히고 있으며 투사적 읽기 즉 의도된 이데올로기를 적용한 탓에 하나님의 뜻을 내면화시키지 못하고 도덕적 교훈에 그쳐 착한 아이 만들기에 그치고 있다. 비유를 듣기 전과 후에 등장인물들의 역할과 기능이 뒤바뀌는 동일시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인종차별 등의 문제에 개입하여 평화를 회복시킬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⁵⁹⁾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위하여, 참고할 요소들이 있다. 공감과 환대의

57) 김진호, “격노사회와 사회적 영성,” 김진호 외, 『사회적 영성』, 242.

58) 송창현, “사회적 영성으로의 초대,” 217.

59) 남은경, “한국과 프랑스의 교회교육 내용과 방법의 비교분석: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교육적 주해,” 『기독교교육논총』18(2008), 71~98.

윤리가 그것이다. 물론, 공감과 환대에 관한 논의는 기독교의 전유물은 아니며 여러 분야에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이 사적 감정의 정화로서의 공적 감정을 제시하면서⁶⁰⁾ 연민(compassion)의 사회윤리를 제안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혐오, 질투, 수치심과 같은 차별을 낳은 나쁜 감정들을 억제하고 사람들 사이에 좋은 감정들 즉 공감, 연민, 사랑이 확산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라 하겠다.⁶¹⁾

흥미롭게도, 공감의 문제는 신경과학 및 엔트로피 이론에서도 관심한다. 거울신경(mirror neurons) 혹은 공감 뉴린(empathy neurons)에 대한 관심이 그렇고,⁶²⁾ 엔트로피 이론에서는 공감능력을 인간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이라고 말하기도 한다.⁶³⁾ 비즈니스 감각을 깨우는 능력으로도 인식되기도 하지만,⁶⁴⁾ 사회적 공감의 문제로 읽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인다. 공감 능력이 편견과 차별, 억압을 극복하게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물론, 공감을 선호하는 경향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공감보다는 합리적 추론을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⁶⁵⁾

기독교와 관련하여, 공감을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과 연관시키면서 엇갈린 반향도 나타난다. “배려받고 싶은 방식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동정하라고 해석하거나 타자에 대한 이해는 불필요하다 식으로 왜곡되기도 했다”는 혹평도 있다.⁶⁶⁾ 공감의 문제에서 기독교의 중요성을

60) 강용수, ‘공적 감정으로서의 공감에 대한 연구’, 『철학탐구』45(2017), 132.

61) 임옥희, “마사 누스바움: 인문학적 상상력과 정치적 감정,” 『여성이론』35(2016), 143.

62) Elizabeth A. Segal, *Social Empathy* / 안중희 역, 『사회적 공감』(서울: 생각이음, 2019), 32.

63) Jeremy Rifkin, *The empathic civilization: the race to global consciousness in a world in crisis* / 이경남 역, 『공감의 시대』(서울: 민음사, 2010), 53.

64) Dev Petnaik, *Wired to Care: How Companies Prosper When They Create Widespread Empathy* / 주철범 역, 『호모 엠파티쿠스』(서울: 이상, 2016), 140.

65) Paul Bloom, *Against Empathy* / 이은진 역, 『공감의 배신』(서울: 시공사, 2019), 21.

말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예수 안에서, 직계 혈족만 아니라 모든 인간 심지어 비천한 존재들에게까지 공감하기로 작정한 존재를 마주한다. 예수는 원수가 될 사람에게도 손을 내밀며 보편적 공감을 표현했으며,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공감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을 보여 준 역할모델이었다”는 주장이다.⁶⁷⁾

환대(hospitality)의 중요성 또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레비나스(Emmanuel Levinas)와 데리다(Jacques Derrida)의 타자윤리는 가장 주목할 관점이다.⁶⁸⁾ 레비나스에게서, 타자의 얼굴의 현현은 윤리적 호소로서⁶⁹⁾ 타자를 위한 공감과 환대의 윤리를 말하는 핵심이다.⁷⁰⁾ 각자가 삶을 향유하고 있을 때, 타자가 햇빛은 얼굴을 내밀며 죽이지 말라고 명령하는 사건은⁷¹⁾ 환대를 나의 주체성에 속하는 일이 되게 한다.⁷²⁾ 그런가 하면, 데리다는 순수한 환대를 옹호하면서 조건적 환대의 폭력을 거부한다.⁷³⁾ 그리고 이들의 환대의 윤리에 대한 해석들에는 다양한 관점이 담겨있다. 예를 들어, 사람이란 자리를 주는 행위로서의 환대에 의해 사회 안에 들어가며 사람이 된다는 해석은 흥미로운 관점이다.⁷⁴⁾ ‘듣기의 윤리’와 접맥시켜 환대를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⁷⁵⁾

66) Elizabeth A. Segal, 『사회적 공감』, 26.

67) Jeremy Rifkin, 『공감의 시대』, 294.

68) 윤대선, 『레비나스의 타자철학』(서울: 문예출판사, 2017), 22.

69) 강영안, 『타인의 얼굴: 레비나스의 철학』(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5), 35.

70) 박남희, 『레비나스, 그는 누구인가 모든 것은 윤리의 문제이다』(서울: 세창출판사, 2019), 60.

71) 김혜령, “레비나스 얼굴 윤리학의 진보적 수용: 주디스 버틀러의 적의 얼굴을 향한 정치 윤리학,” 강영안 외, 『레비나스 철학의 맥락들』(서울: 그린비, 2017), 245.

72) 강영안, “나의 철학 여정과 레비나스 내가 만난 레비나스,” 강영안 외, 『레비나스 철학의 맥락들』, 53.

73) Hans Boersma, *Violence, Hospitality, and the Cross: Reappropriating the Atonment Tradition* / 윤성현 역, 『십자가, 폭력인가 환대인가』(서울: CLC, 2014), 65.

74)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5, 2020판), 57.

75) 이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참고하도록 권한다. 김혜령, 듣기의 윤리: 주체와 타자, 그리

이처럼 공감과 환대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 제자도를 그 트렌드에 끼워 맞춰보자는 취지는 아니다. 기독교가 놓치고 있던 요소들을 재발견 혹은 복원하도록 이끌어 준다는 점에서, 공감과 환대에 관심할 필요는 충분하다. 아이러니하게도, 공감과 환대를 다루는 과정에서 기독교가 차별과 배제의 원인으로 지목당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교회사 전반에 도사린 내부 반역자들에 대한 폭력적 억압, 국가 권력과 교회의 결탁 등은 교회의 중심부에 환대가 아니라 폭력이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⁷⁶⁾ 그렇다면, 공감과 환대를 기독교와 연계시키려는 노력은 기독교의 자의적인 착각일까?

공감과 환대에 대한 기독교적 논의에서 이 부분은 깊은 자성이 필요한 요소이다. 그것은 또한 기독교가 복원해야 할 가치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접점이기도 하다. 공감과 환대에 관한 여러 해석들을 충분히 참고하면서, 기독교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자아가 아닌 타자’에 초점을 맞추는 사실이다.⁷⁷⁾ 이것은 이웃 되기의 제자도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타자 되기의 제자도를 향하여 지평을 확장해야 함을 말해주는 듯싶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감과 환대에 대한 신학적 반추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환대를 ‘낯선 자들과의 연대’(solidarity with strangers)로 해석한 러셀(Letty M. Russell)의 관점은 중요한 통찰이다.⁷⁸⁾ 부르스마(Hans Boersma)가 환대를 신적인 덕(divine virtue)으로 해석하면서 복음적 환대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한 것 역시 중요해 보인다. 또한 지프(Joshua W. Jipp)가 하나님의 ‘환대’로써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대

고 정의와 환대에 대하여(서울: 봄날의 박씨, 2020).

76) Hans Boersma, 『십자가, 폭력인가 환대인가』, 43.

77) 김연숙, 『레비나스의 존재와 다르게-본질의 저편 읽기』(서울: 세창미디어, 2018), 11.

78) Letty M. Russell, *Just Hospitality: Gods welcome in a world of difference* (Louisville, K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9), 19~20.

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것도 의의가 있다.⁷⁹⁾ 나아가, 환대를 ‘받아들이기’(making room)라고 해석하면서 기독교 정체성의 핵심으로 풀이한 주장한 폴(Christine D. Pohl)의 관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⁸⁰⁾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반영하여 선한 사마리아인 제자도를 다시 읽어야 한다. “누가복음-사도행전 내러티브’(Luke-Acts Narrative)에서 중심이 되는 이야기는 환대이기 때문이다. 예수는 환대의 모범으로서 여성과 어린이, 노예만 아니라 가난한 자와 장애인 그리고 고대세계의 억압받던 모두를 환대한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환대의 구현자로 소개하면서, 영생에 관해 질문에 대해 환대를 답으로 제시한다.”⁸¹⁾

여기에, 구약의 한 부분(대하28:15)을 대입하여 선한 사마리아인 제자도를 읽어보자.⁸²⁾ 예수께서 이 비유를 풀어나가실 때, 질문을 던졌던 서기관은 틀림없이 다 알아차렸을 것이고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해 옛적에 일어났던 큰 긍휼의 장면을 떠올렸을 것이다. 이것을 배경으로 하면 예수께서 주신 답이 명료해진다. 여리고 전투에서 부상 당한 유대 포로들을 돌보아준 사마리아인들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이 피해자를 구조했다는 암시가 된다.⁸³⁾

물론, “제사장과 레위인이 악행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79) Joshua W. Jipp, *Saved by Faith and Hospitality* / 송일 역, 『환대와 구원 혐오: 배제, 탐욕, 공포를 넘어 사랑의 종교로 나아가기』(서울: 새물결플러스, 2019), 21.

80) Christine D. Pohl, *Making Room: Recovering Hospitality as a Christian Tradition*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9), Preface, x.

81) Amos Yong, *Hospitality and the Other: Pentecost, Christian Practices, and the Neighbor* (Maryknoll, NY: Orbis Books, 2008), 118-122.

82)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대하 28:15)

83) Lois Tverberg, *Walking in the dust of Rabbi Jesus* / 손현선 역, 『랍비 예수』(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20), 84.

(nothing at all)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는 점을 일깨워준다.⁸⁴⁾ 나아가, 볼프(Miroslav Volf)의 지적처럼,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자신의 일에만 신경 쓴 채 반대편으로 지나쳐가는 현대인의 모습”도 투영되어 있다고 하겠다.⁸⁵⁾ 이러한 요소들을 포함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선한 사마리아인 제자도에서 각별히 주목할 것은 공감과 환대의 사회적 영성이다.

지프(Joshua W. Jipp)가 말한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 제자도는 공감과 환대의 윤리를 보여준다.⁸⁶⁾ 타자에 대한 환대를 정결보다 우선시하며 제사장과 레위인보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생명의 상속자로 소개하는 셈이다.⁸⁷⁾ 그것은 “유대인의 정결의 정치학(politics of purity)에 도전하고 함께 아파하기를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라 하겠다.”⁸⁸⁾ 다시 말해, 선한 사마리아인의 제자도는 “인종, 연령, 국적, 젠더, 그리고 다른 문화적 요소를 포함한 모든 장벽을 넘어선다.”⁸⁹⁾

이러한 의미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제자도를 공감과 환대의 윤리로 읽어야 하고, 제자 공동체로서 교회는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⁹⁰⁾ 환대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환대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이 다른 이들에게 환대를 베풀도록 요구하신다. 환대는 신적 기원을 가지는 덕으로서, 우리가 서로를 환대해야 한다는 요청의 근거가 된다.”⁹¹⁾ 적극

84) Eugene Quinn, “Encountering the Stranger: Finding the Good Samaritan in each of us,” in Jesuit Centre for Faith and Justice eds, *Windows on Social Spirituality* (Dublin, Ireland, 2003), 120.

85) Miroslav Volf, *Exclusion and Embrace* / 박세혁 역, 『배제와 포용』(서울: IVP, 2012), 114.

86) Joshua W. Jipp, 『환대와 구원』, 65.

87) Hans Boersma, 『십자가, 폭력인가 환대인가』, 65.

88) 송창현, “사회적 영성으로의 초대,” 221.

89) Scott J. Jones, *The Evangelistic Love of God and Neighbor: A Theology of Witness and Discipleship*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03), 195.

90) Hans Boersma, 『십자가, 폭력인가 환대인가』, 354.

91) Joshua W. Jipp, 『환대와 구원』, 21.

적으로, 타자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되기로 하는 결정이 필요하다.⁹²⁾

다시 말해, 선한 사마리아인 제자도는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로 읽어야 한다. “차별이나 동화의 강제와 같은 타자지배적 폭력을 부정하고 타자존중을 지향하는 그리스도인 아이덴티티를 위한 주체의 변용이 필요하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타자의 얼굴에 의해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자로서, 사경을 헤매는 타자를 구하는 행위를 통해 타자에 대한 유책성을 구현했다.”⁹³⁾ 선한 사마리아인 제자도를 타자되기의 윤리로 읽어야 할 이유이다.

참고로, 나치 치하에서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실천은 타자 되기를 상징하는 듯싶다. “비유대인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생존을 위해 구체적인 도움이 주었다. 갈 곳 없는 유대인을 집으로 맞아들이고 넉넉한 음식과 필요한 돈을 주며 은신처와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증명서와 교통수단을 마련해주었다.”⁹⁴⁾ 이러한 행위의 근거가 선한 사마리아인 제자도라는 점은 큰 의의가 있다. 오늘의 기독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⁹⁵⁾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제자도의 관점에서 읽어야 하고, 타자되기의 과제를 말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타자되기의 제자도는 공감과 환대에 관한 현대적 관심의 기독교적 응용이라기보다 기독교의 본래적 가치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감하고 환대하는 타자되기의 제자도

92) Rowan Williams, “The ethics of global relationships,” in Richard Carter and Samuel Wells, eds, *Who is My Neighbour?*, 16.

93) 이상훈, “예수의 선교에서 본 그리스도인 아이덴티티에 대한 일 고찰: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학과 연결 속에서,” 『선교신학』 49(2018), 375~405.

94) Glen Stassen and David P. Gushee,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 따름의 윤리』, 649.

95) David P. Gushee, *Righteous Gentiles of the Holocaust: Genocide and Moral Obligation* (St. Paul, MN: Paragon House, 2003), 17.

는 예수 그리스도가 요청하는 가치이며 공적 책임과 소통의 이웃 되기의 제자도와 더불어 한국기독교가 관심해야 할 요소이다.

3. 사회적 영성의 복원: 한국기독교의 과제

한국기독교는 사회적 영성을 타자 대하듯 낯설어하거나 불편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까지의 논의에 깔려 있는 이 질문과 관련하여, 기독교의 사회적 영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수렴되며, 그 구현의 길이 제자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제는 한국기독교가 제자도와 사회적 영성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놓치고 있다는 점이다. ‘제자훈련’은 있으나 제자도 그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 교회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으로 변질된 상황에서, 사회적 영성에 대한 관심이 희석되거나 생략되기 쉬운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한국기독교를 향하여 사회적 영성의 결여를 지적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다. 바리새주의자들처럼 권력화되고 기득권을 지키는 보수의 아이콘이 되었으며 차별과 혐오와 배제를 일삼는 집단이라는 문제 제기는 기독교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기도 한다. 사실, 한국기독교는 극단적인 내세지향적(otherworldly) 영성을 보이고 있으며⁹⁶⁾ 변영의 복음에 집착하고 있다. 공적 책임과 소통, 공감과 환대는 낯선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사회참여적 성향을 지닌 신학의 진유물이라고 여기는 경향까지 포함된다. 이러한 현실을 자성하면서, 사회적 영성을 제자도에 담겨있는 가치이자 한국기독교가 구현해야 할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사회적 영성의 기원과 복원(혹은 현대적 적용)에 관심해야 할 이유이다.

짚어줄 것이 있다. 공감과 환대의 사회적 영성을 회복하는 것 자체는

96) ‘Korean Christian Spirituality,’ in Glen G. Scorgie eds, *Dictionary of Christian Spirituality* (Grand Rapids, MI; Zondervan Publishing, 2011), 564.

중요하다. 하지만, 공감과 환대가 사회적 영성의 전부인 것은 아니다. 신학이 사회·정치적이고 문화적 맥락에서 형성되는 것처럼, 영성 역시 특정하고도 다양한 맥락 및 구체적인 요소들을 반영하기 때문이다.⁹⁷⁾ 공적 책임과 소통, 공감과 환대를 포함하여 사회적 영성에 관한 더 많은 관심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하우어워스(Stanley Hauerwas)가 십자가의 정신을 ‘평화’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도 사회적 영성에 속할 수 있겠다. 복음의 사회적 증인(social witness)됨에 관심하도록 촉구한다는 점에서, 관심할 부분이다.⁹⁸⁾

다만, 이 글은 하나의 ‘시론’ 내지는 모색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낸다. ‘사회적 영성,’ ‘제자도,’ 그리고 ‘덕 윤리’를 아우르는 과정에서 그 각각의 관점들로부터 논의의 불충분성을 지적받을 우려가 있다. 그리고 사회적 영성을 제자도에 근거하여 모색하는 것이 어느 정도나 타당한 것일지에 관하여,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 제자도가 타당하고도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일지에 대한 반론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제자도와 덕 윤리를 연관짓는 과정에서 덕 윤리 전반에 대한 반론 및 덕 윤리의 모호성과 권위주의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 심지어는 전혀 의도치 않았던 방향 즉 진보적 주제를 보수적 관점에서 접근하려 애쓴다는 안쓰러움까지 지적받게 될 우려 또한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도에 근거한 사회적 영성을 추구하는 취지는 분명하다. 사회적 영성의 긴요성을 확인하고 그 근거를 제자도에서 찾는 것은 사회적 영성에 관한 기독교적 관심의 특성을 드러낼 통로가 될 것이

97) Simon Chan, “Spiritual Theology”, in Glen G. Scorgie eds, *Dictionary of Christian Spirituality*, 56.

98) Biji Stephen Pallonnill, *Christian Ethics between Withdrwal and Assimilation: Chuch’s Conversation with the World in the Light of the Ecclesio-Centric Ethics of Stnalely Hauerwas* (Saarbrücken, Germany: LAP LAMBERT Academic Publishing, 2012), 180.

기 때문이다. 나아가,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제자도 개념에 친숙해진 한국기독교의 자원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이러한 모색을 통하여 사회적 영성의 복원을 위한 관심이 촉발되고 온전한 제자도에 다가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글은 내면적 영성과 교회적 영성을 꺾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놓치고 있던 사회적 영성에 주목함으로써 한국기독교의 통전적 영성회복 및 윤리개혁을 촉구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III. 나가는 말

제자도에 근거한 사회적 영성의 함양은 한국기독교가 주목해야 할 과제이다. 사회적 영성에 대한 관심은 사회참여적 성향을 지닌 신학의 전유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회적 영성이라는 것 자체가 제자도에 근거한다는 사실은 성향의 문제를 넘어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추구하는 모두가 관심해야 할 주제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회적 영성은 한국기독교에 낯선 것인가?’의 질문은 중요하다. 한국기독교가 사회적 영성의 구현이라는 본래적 과제에 관심해야 함을 일깨워주기 때문이다. 특히, 선한 사마리아인 제자도는 사회적 영성의 기원과 복원에 관하여 중요한 통찰을 준다. 사회적 영성은 한국기독교에 타자처럼 낯설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위해 반드시 회복되고 구현되어야 할 가치임이 확인되는 셈이다.

특히, 선한 사마리아인 제자도가 이웃 되기에 제한되지 않고 타자 되기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기독교가 복원해야 할 과제라고 하겠다. 나아가, 공감과 환대는 물론이고 책임, 소통, 평화, 그리고 사회적 섬김까지 아우르는 문제의식은 기독교에 낯선 그 무엇이 아니라 본래적 가치에 속한다. 한국기독교가 내면적 영성 및 교회적 영성에 제한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사회적 영성의 회복을 통하여 윤리개혁에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참고문헌

- 강영안, 『타인의 얼굴: 레비나스의 철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5.
- 김경진, 『누가신학의 제자도와 칭지기도』, 서울: 솔로몬, 1996.
- 김득중,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연구,” 『신학과 세계』 15(1987), 239~268.
- 김연숙, 『레비나스의 존재와 다르게-본질의 저편 읽기』, 서울: 세창미디어, 2018.
- 김은수, “누가의 신학주제에 대한 선교적 해석: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선교신학』 55(2019), 71~97.
- 김진호 외, 『사회적 영성』, 서울: 현암사, 2014.
- 김춘기, 『예수를 따르는 자: 복음서의 제자직』, 서울: 한들출판사, 2009.
- 김관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눅10:30~35) 연구,” 『신약논단』 14-4(2007), 1015~1052.
-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20.
- 김혜령, 『듣기의 윤리: 주체와 타자, 그리고 정의와 환대에 대하여』, 서울: 봄날의 박씨, 2020.
- 남은경, “한국과 프랑스의 교회교육 내용과 방법의 비교분석: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교육적 주해,” 『기독교교육논총』 18(2008), 71~98.
- 송인규 외, 『한국교회 제자훈련 미래전망보고서: 무엇을 위한 누구의 제자인가?』, 서울: IVP, 2016.
- 송재룡, “영성 사회학 테제의 가능성: 쟁점과 전망,” 『사회이론』 44(2013), 257~291.
- 송창현, “사회적 영성으로의 초대,” 『가톨릭평론』 1(2016), 215~222.
- 이민규, “누가복음 10:25~35에 나타난 고정관념의 탈출: 예수와 율법사와의 논쟁 그리고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신약논단』 9-2(2002), 323~348.
- 이상훈, “예수의 선교에서 본 그리스도인 아이덴티티에 대한 일 고찰: 레비나스의 타자윤리학과 연결 속에서,” 『선교신학』 49(2018), 375~405.
- Boersma, Hans, *Violence, Hospitality, and the Cross: Reappropriating the Atonement Tradition* / 윤성현 역, 『십자가, 폭력인가 환대인가』, 서울: CLC, 2014.
- Bonhoeffer, Dietrich, *The Cost of Disciple*,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1995.
- Carter, Richard, and Wells, Samuel, eds., *Who is My Neighbour?*, London: SPCK Publishing, 2018.
- Chan, Simon, *Spiritual Theology: A systematic study of the Christian life*, 김병오 역, 『영성신학』, 서울: IVP, 2017.
- Curran, Charles E., and Fullum, Lisa A., eds, *Ethics and Spirituality*, Nahwahm NJ: Paulist Press, 2014.
- Gushee, David P., *Righteous Gentiles of the Holocaust: Genocide and Moral Obligation*, St. Paul, MN: Paragon House, 2003.
- Harrington, Daniel and Keenan, James, *Jesus and Virtue Ethics: Building Bridges between New Testament Studies and Moral Theology*, Lanham, ML: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2.
- Jesuit Centre for Faith and Justice eds, *Windows on Social Spirituality*, Dublin, Ireland, 2003.
- Jipp, Joshua W., *Saved by Faith and Hospitality* / 송일 역, 『환대와 구원 혐오: 배제, 탐욕, 공포를 넘어 사랑의 종교로 나아가기』,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9.
- Outka, Gene, *Universal Love and Impartiality* / 이창호 역,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15.
- Salzman, Todd A., and Lawler, Michael G., *Virtue and Theological Ethics: Toward Renewed Ethical Method*, Maryknol, NY: Orbis Books, 2018.
- Stassen, Glen, *A Thicker Jesus: Incarnational Discipleship in a Secular Age*, Louisville, K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2.
- Stackhouse, M. L., *Public Theology and Political Economy: Christian Stewardship in Modern Society*,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 Co., 1987.
- Yong, Amos, *Hospitality and the Other: Pentecost, Christian Practices, and the Neighbor*, Maryknoll, NY: Orbis Books, 2008.
- Volf, Miroslav, *Exclusion and Embrace* / 박세혁 역, 『배제와 포용』, 서울: IVP, 2012.

논문투고일: 2021년 02월 18일

심사개시일: 2021년 03월 16일

게재확정일: 2021년 04월 06일

• 국 문 초 록 •

한국기독교를 향하여 공적 책임과 소통, 공감과 환대의 ‘사회적 영성’에 대한 요청이 절실해지고 있다. 문제는 한국기독교가 사회적 영성을 낯선(strange) 것으로 간주하거나 혹은 사회참여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에게나 해당하는 것으로서의 타자인 듯 여기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사회적 영성이 기독교 고유의 자원에 속하며 기독교가 구현해야 할 과제임을 제안한다. 특히, 한국기독교에 익숙한 제자훈련에 착안하여 제자도에 주목함으로써 사회적 영성의 기원과 복원을 다룬다. 사회적 영성의 기원에 관하여, 이 글은 사회적 영성의 기원을 선한 사마리아인 제자도에서 찾는다. 제자도와 영성함양에 관한 덕 윤리의 조망을 바탕으로, 선한 사마리아인 제자도를 사회적 영성의 기원으로 읽어낸다. ‘이웃 되기’와 ‘타자 되기’가 그것이다. 이웃 되기란 공적 책임과 소통의 윤리를 말하며, 타자 되기란 공감과 환대의 윤리를 말한다. 이것은 오늘의 이슈들을 선한 사마리아인 제자도에 끼워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제자도 안에 사회적 영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사회적 영성의 복원에 관하여, 이 글은 한국기독교가 사회적 영성을 낯선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현할 책무를 지니고 있음을 제시한다. 한국기독교는 내면적 영성 및 교회적 영성에 제한되기 쉬운 ‘사사회’의 위험을 극복하여 사회적 영성의 복원을 통하여 윤리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주제어: 사회적 영성, 제자도, 책임, 소통, 공감, 환대, 사회적 영성의 기원과 복원
